현대소설연구(제9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3.12.92.231

조세희의 '은강' 연작과 1970년대 한국의 산업선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천사의 달」을 중심으로*

정 주 아**

요약

이 글은 조세희가 집필에 몰두했던 1970년대가 종교와 노동이라는, 관념과 물질의 양극단이 합쳐지는 특이성을 지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은강 연작과 「천사의 달」을 텍스트로 삼아, 작중의 노동 서사가 1970년대 기독교 노동운동 특히 산업선교회와 결합된 양상을 살폈다. 본론의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은강으로 이주한 난장이의 자녀들이 노동운동에 합류하는 과정을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인천산선)의 활동과 동일방직의 사례를 통해 살핀다. 둘째, 은강 연작의 노동운동관이 종교적 신념과 강하게 맞물려 주요 서사를 추동하고 있음을 알아본다. 큰아들 영수의 살인 및 죽음은 전태일로 대변되는 1970년대 노동운동계에 산재했던 죽음과 조응하며 종교적으로 의미화된다. 마지막으로는 『난쏘공』이 남긴 과제가 그 후속작인 「천사의 달」에 반영되는 양상을 살핀다. 산업선교의 전성기 이후에 쓰인 조세희의 소설은 종교 단체에 의존한 노동운동의 형식이 시대적으로 부정되는 모습까지도 포괄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조세희 문학이 당대 노동운동의 현장 속에서 현실 변혁을 소명으로 삼는 구체적인 유토피아니즘을 추구했음을 살폈다.

주제어: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천사의 달」, 은강, 산업선교, 노동자교회,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동일방직.

* 이 논문은 2022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목차

1. 조세희의 ‘은강’과 1970년대 산업선교
2. 인간에 의한 인간의 구원
3. 죽은 이들의 외침과 영수의 선택
4. 어떤 양자 대면, 두 명의 영희
5. 70년대가 보내는 청구서

1. 조세희의 ‘은강’과 1970년대 산업선교

이 글은 조세희 문학을 1960-70년대 기독교 노동운동, 특히 산업선교회 활동과의 연관 속에서 읽어보고자 한 것이다. 물론 해당 운동의 목적이나 전략이 조세희의 작품 내에서 종교사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확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당대 한국의 산업화 속에서 기독교 노동운동에 의해 추동되었던 변화를 감안한다면, 노동과 종교의 맞물림을 따라 읽는 독해 방식은 오히려 필연적인 것이다. 주지하듯 1960-70년대는 한국 근현대사의 그 어떤 시기보다도 분배 정의를 놓고 종교계가 실천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던 시기이다. 가령 이 글에서 다루는 도시산업선교회나 크리스찬아카데미 등은 노동법 교육부터 노동조합의 결성에 이르기까지 아직 개념적·제도적으로 정립되지 못했던 한국 노동운동의 초석을 놓은 단체들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공장제 산업기로 접어들었다는 시대적 판단이 놓여 있었다. 이들은 산업사회의 기층을 이루며 실질 노동을 제공하지만 법적 보호나 복지 제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가장 시급한 사회적 문제라 보았다.

산업 체제의 전환에 따른 문제의식은 작가 조세희에게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대표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8, 이하 『난쏘공』)에

서 단순일용직 노동자였던 난장이가 죽은 후 그의 자녀인 영수 삼남매는 은강공업지대의 노동자로 취업하게 된다. "돌아간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일을 우리는 시작했다. 우리는 큰 공장 안에서 기계를 돌려 일하는 수많은 공원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1] 영수의 설명에는 산업 체제의 전환을 작중 세대교체의 설정과 관련지어 다루려는 작가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2] 기실 난장이 연작은 크게 보아 도시빈민의 문제와 노동자 문제라는 두 가지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2편으로 구성된 이 연작은 다섯 번째 에피소드인 「육교 위에서」를 경계로 연작 전편과 후편의 제재가 달라진다. 전편이 낙원구 행복동의 난장이 가족을 중심으로 도시 빈민의 삶을 조명한다면, 후편의 에피소드들은 은강으로 이주한 난장이의 가족을 중심으로 공장노동자의 삶을 그려내는 데 집중한다.[3] 당초 개별 지면에 발표된 난장이 연작을 단행본으로 엮으면서, 『난쏘공』은 독자들에게 한 편의 장편소설로 연결되어 읽히도록 수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최초 발표본과 단행본을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가는 등

1) 조세희,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1977),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1997(4판), 173면. 이하 본문에서 해당 작품집을 언급할 때 인용과 페이지 수는 위 판본을 따르고, 작품명은 『난쏘공』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아울러 본문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할 때에는 표준어인 '난쟁이'를 따르지 않고, 작품에 등장하는 고유명사임을 감안하여 '난장이'로 표기하기로 한다.

2) 황석영의 『객지』가 '뜨내기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것에 비교할 때 조세희는 "조직된 노동자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것"이라 분석하거나(이부영, 「좌담회_내가 생각하는 민족문학」, 『창작과비평』13, 1978, 36면.), 난장이 연작은 "소설로 쓴 노동계급 형성사의 일부"라는 견해는(김우창, 「역사와 인간 이성-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4반세기」, 『작가세계』14, 2002 가을호, 53면.) 난장이 연작이 한국사회의 산업구조가 공장제 노동으로 변화했다는 시대적 현상 자체를 '의식적'으로 자각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3)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역할을 담당하는 「뫼비우스의 띠」「에필로그」를 제외하고, 「칼날」「우주여행」「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이 낙원구 행복동에서 벌어진 난장이 가족의 비극을 다룬 전편에 해당한다. 「육교 위에서」를 경계로 삼아 그 이후에 등장하는 「궤도 회전」「기계도시」「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잘못은 신에게도 있다」「클라인 씨의 병」「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등은 은강 공업지구의 노동자가 된 난장이의 아들딸에 관한 후편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 후반부의 작품들을 통칭할 때 '은강 연작'이라 부르기로 한다.

장인물의 이름이나 내용을 수정하고,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등을 배치하면서 작품 전체가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작했다.[4] 그러나 이런 수정 작업에도 불구하고 행복동을 떠나 '성남'으로 이사했다던 「난쏘공」의 난장이 가족은 「기계도시」에 이르러 '은강'에 이주한 상태로 등장한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연작 전반부의 제재인 도시 빈민의 거주권 문제는 도시개발계획 및 '광주대단지 사건'에서[5] 그 모티프를 가져왔으나, 후반부에서 공장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업단지를 배경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내용의 일관성보다 제재의 사실성을 우선한 선택이다.

그러나 '난장이 가족은 왜 은강으로 이주했을까'라는 질문에 온전히 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은강은 1960년대에 목재, 기계, 방직, 금속 등 경공업과 중공업을 아우르는 대규모 공업단지였던 인천의 만석지구를 모델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다.[6] 이런 맥락을 감안한다면, 방직공장에 취직한 영희의 열악한 작업환경이라든가 노동조합 쟁의에 대한 묘사는 인천 만석지구에 위치했던 '동일방직' 사건과

4) 류경동은 등장인물의 이름 수정, 전체적 의미의 통일성을 고려한 내용 개작,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배치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 소설이 장편소설처럼 읽히도록 작가가 고려했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류경동,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구-개작과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14(2), 2013, 99-103면.) 단행본 『난쏘공』이 개별 작품을 모아놓았지만 전반적으로 하나의 장편소설로 읽히도록 고려한 소설이라는 견해는 발표 당시부터 있었다(김병익, 「대립적 세계관과 미학」,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997, 문학과지성사, 1997, 278면.).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에 동의하되, 난장이 가족이 '성남'으로 이사했다는 「난쏘공」의 설정이 소설 후반부에 재등장하지 않고, '은강' 지역으로 이주한 데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소설 전후반부의 주제 및 논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요소가 된다.

5) 1971년 8월, 서울의 무허가주택을 정비하면서 해당 지역의 철거민들을 경기도 광주(현재의 성남)에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생겨난 벌어진 광주대단지 시민들의 대규모 봉기 사건을 가리킨다.

6) 박경호 기자, 「'난쏘공'이 인천에 남긴 흔적들… 지울까, 지킬까」, 『경인일보』, 2023.2.15.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21501000308 1, 검색일 2023.8.22)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동일방직은 1976년 노동쟁의가 발생한 이래 강제 해산에 저항하는 나체 시위, 노동조합 결성 당시의 인분 세례, 집단 해고와 복직 투쟁 등 다양한 노동 이슈를 양산한 곳으로, 초기 노동조합운동의 산역사라 불리는 산업체이다. 초기의 노동조합운동들이 산업선교 단체의 지원과 맞물려 진행이 되었던 만큼, 동일방직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동일방직은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약칭 '인천산선')가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곳이다. 인천산선은 동일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및 노동조합 관련 사안을 교육하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 노조원을 포섭 및 의식화하면서 노동자가 중심이 된 노동조합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7] 노조를 둘러싼 직장 내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은 『난쏘공』 연작의 「기계도시」,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등의 주요 서사를 이룬다. 이들 단편에서 영수와 영희를 노동자로 '의식화'시키는 데 있어 노동자교회가 등장하는 것은 당대 노동운동 현장에 대한 사실적 재현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난장이 가족이 은강으로 이주를 해야 했던 것은 단순히 공장지대라는 '배경'이 필요했기 때문만은 아니겠다. 그 근본적인 의미는 인간과 기계 간의 권력 구도가 역전되는 산업 전환기를 맞는 작가의 태도에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 조세희는 종종 1960-70년대 공장노동자의 삶을 영국 산업혁명기의 그것과 비교하곤 했다. 기계의 속도에 맞추어 운용되는 인간의 삶, 작중 영수가 말하듯 "기계에 의한 속박"[8]에 의해 파괴되는 인간의 몸과 정신, 나아가 인간의 노동 그 자체에 대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가, 어떤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느냐가 그의 질문이었다. 조세희가 자신을 "산업사회의 첫 세대"라[9] 규정지었다는 점은,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한 인간의 운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7) 장숙경, 『산업선교, 그리고 1970년대 노동운동』, 선인, 2013, 112-115면 참조.
8) 조세희,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175면.
9) 조세희 · 이경호, 「작가 인터뷰-2.5세계의 불안한 나날」, 『작가세계』14, 2002년 가을호, 26면.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그가 그려낸 난장이 가족은 당대 산업사회의 암울한 현재가 응축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현재를 바꾸려는 저항이 가장 격렬한 곳에 놓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단순한 공장지대가 아니라 현 상태에 대한 의식적 저항이 진행되는 곳, 현 상태의 변화를 원하는 이들의 희망이 모인 곳이어야 했다.

산업화시대의 인간과 노동이라는 주제에 있어, 조세희의 시선이 당대 가장 치열한 노동운동의 현장으로 향했다는 사실은 이 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난장이 가족의 비극을 다룬 행복동 이야기에 비할 때 공장노동자가 된 한 영수 남매의 이야기를 다룬 은강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당대 비평문학의 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그 편중의 구도는 『난쏘공』이 고전의 반열에 오른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듯 관심이 편중된 이유는 『난쏘공』이 도시빈민과 공장노동자를 별개로 다루지 않고, 빈곤의 대물림 구조를 통해 그 존재론적 이행을 묶어서 다루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듯하다. 즉 이 두 그룹은 1970년대 한국사회가 만들어낸 서발턴의 두 형상이겠으나, 당대 평단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호출되지는 않았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난쏘공』이 그려낸 도시빈민은 시대적 전형이라 볼 수 있으나, 공장노동자는 그 정치적 역량의 차원에서 '노동문학'의 전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선입견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10] 그러나 『난쏘공』의 은강 이야기는 '주체적이고 강력한 계급적 의지

10) 해당 논의와 관련해서는 김예림, 「빈민의 생계윤리 혹은 탁월성에 관하여」, 『한국학연구』36, 2015.2, 52-76면 참고. 이 글의 논자는 1980년대의 문학장이 강력한 정치적 주체로서의 노동자 문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도시빈민을 "계급적 역능을 온전히 갖지 못한 존재"(54)로 보아 빈곤의 문제를 도리어 주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더불어, 『난쏘공』을 80년대의 민중 · 노동문학의 인정체계에서 밀려났던 텍스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 결정적 장면으로 논자는 홍희담의 「깃발」이 '난쏘공'이 재현한 여성노동자의 형상을 거부하는 장면을 든다. 본고는 시각에 공감하며, 이러한 논의가 '노동문학'의 정립이라는 당위성에 가려졌던, '현존하는 가난, 그리고 도시빈민의 노동자화라는 이행'의 문제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본다. 이에 『난쏘공』을 도시빈민의 노동자화라는 과정적 이행과 '빈곤'의 문제를 문제 삼은 텍스트로 보고, 이에 빈곤 구조의 재생산이라는 현실 변혁의 실천적 요구를 산업선교라는 종교 이

를 지닌 노동자'의 당위적 형상 이면에 실재했던 '도시빈민의 공장노동자화'라는 과정적 이행을 담는다. 이에 가난의 구체성에서 비롯되는 공포가 얼마나 큰 현실 변혁의 장애가 되는지를, 그 공포를 변화의 동력으로 끌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가를 그려낸다. 이 서사에는 노동운동에 합류하기를 거부하거나 배반하는 '선량한' 노동자들, 노동운동에 합류한 아들을 비난하는 어머니, 제자리 협상에 지쳐 살인을 저지르는 노동운동가 등이 고루 존재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현재의 공포를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노동자를 의식화시키고 '믿도록' 만드는 외부자들, 즉 노동자의 현실인식을 각성시켜 희망을 불어넣는 존재로서 종교적 조력자들이 개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1970년대만큼 종교가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에, 그것도 구체적 현실에 육박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시기는 없었다. 『난쏘공』의 은강 이야기는 노동과 종교가 만났던 독특한 사태를 보여주는 산물이다. 『난쏘공』을 통해 우리는 종교라는 '믿음과 희망의 형식'이 노동 현장에 스며드는 모습을, 그로부터 만들어진 노동운동의 고민을, 나아가 이런 고민을 통해 성장한 노동운동 내부의 논리에 의해 본래의 형식이 부정되는 모습까지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 글의 논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난쏘공』의 은강 연작이 당대 산업선교회 및 노동운동 조직과 구체적으로 연결된 양상을 작중에서 노동운동가로 거듭나는 영수의 변모를 통해 살핀다. 다음으로는, 은강 연작의 노동운동관이 종교적 신념과 강하게 맞물려 주요 서사를 추동하고 있음을 알아본다. 큰아들 영수의 살인 및 죽음은 전태일로 대변되는 1970년대 노동운동계에 산재했던 죽음과 조응하며 종교적으로 의미화된다. 마지막으로는 조세희의 노동서사에 존재하는 일정한 '시차(時差)'의 의미를 분석한다. 앞서 살폈듯 산업선교 활동은 1960년 후반에서 70년 중반까지 전성기를 맞았고, 70년대 후반에

상과 결합하여 다루고 있다는 데에서 그 이행기적 특수성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는 소강기로 접어든다. 1970년대 후반에 쓰였기에 조세희의 소설은 산업선교의 전성기 이후, 즉 제1세대 노동운동의 끝자락 속에서 발표되었다. 이에 그의 소설은 종교 단체에 의존한 노동운동의 형식이 시대적으로 부정되는 모습까지도 포괄하게 된다. 이 논의를 위해 본고는 작가 스스로 난쏘공의 후속작이라 밝힌 바 있는 신문연재소설 「천사의 달」(『조선일보』, 1981.7.7.~11.13.)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포함한다. 「천사의 달」은 그간 조세희 논의에서는 거의 다루어진 바 없는 작품으로, 난장이 연작의 주요 인물을 이어받으면서도 작중 인물들의 사회계급 간 갈등 양상을 보다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조세희 소설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유토피아를 그린다는 그간의 견해를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작업이 되기도 할 것이다.[11] 이때 산업선교가 내세론이 아니라 현장 사역을 중시하는 실천신학의 성격을 띠었다는 사실은 조세희 문학을 당대 노동운동의 현장성 속에 재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조세희가 천착한 노동운동의 현장 자체에 현실의 변혁을 추동하는 동인으로 종교적 관념성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이로써 조세희 문학의 추상성과 초월성에 대한 논의를 재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1) 이러한 견해들은 조세희의 소설이 선악, 빈부, 이상 대 현실 등 이분법적 세계관에 토대하고 있으나, 우주여행 같은 우화적 설정과 '뫼비우스의 띠', '클라인씨의 병' 등의 관념적 사유를 통해 현실의 대립을 초월한 화해의 시도로 나아간다는 논리로 진행된다. 이렇듯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대립적 미학을 찾아내는 해석은 『난쏘공』의 초기 해석인 김병익 「대립적 세계관과 미학」(1978) 이후로 반복되어 온 방식이다. 이러한 우화나 비유의 미학을 둘러싼 논의는 당대 '민중문학'이나 '리얼리즘'의 개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 속에서, 조세희 소설을 리얼리티의 미달을 읽어내는 반례로서(윤지관, 「뫼비우스의 심층 환상과 리얼리즘」, 『창작과비평』32(1), 2004.3) 소비하는 현상을 재생산한다.

2. 인간에 의한 인간의 구원

앞서 인천 만석지구의 산업체와 '은강'의 의미에 대해 살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쏘공』에 그려진 당대의 노동문제가 인천에만 존재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말해, 먼지와 소음 속에 버티느라 "시간 있는 대로 자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12]인 노동자들이 존재했던 곳은 인천 만석지구뿐만 아니라 서울, 울산 등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던 지역 어디에나 있었다. 이는 무허가주택의 거주자들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낙원구 행복동이 도시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곳인 대도시 어디에나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13] 인천은 노동집약적 산업 공단의 보편적인 전형이 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적 저항이 동시에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작중 '은강'의 주요 모티프가 된 것이다.

1970년대 방림방적, 동일방직, 원풍모방 등 대규모 제조산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운동은 산업선교 조직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령 가톨릭의 가톨릭노동청년회(JOC), 개신교의 영등포산업선교회('영산') 및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인천산선') 등은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선교 조직들이다. 당초 1960년을 전후하여 공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포교 사업에서 시작된 '산업전도'는, 196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조건의 개선을 목표로 삼는 '산업선교'로 방향을 틀어 진행된다. 이러한 방향전환에는 산업화 단계로 접어든 아시아국가들의 노동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이 배경에 놓여 있었고,[14] 국내 목회자들의 인

12) 조화순, 「방적산업의 실태와 신학적 의의-동일방직회사를 중심으로」, 1968.10, 2면.(사료 기증자: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등록번호 0044638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 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446386, 검색일 2023.8.29.)

13) 난장이 가족의 집이 철거된 것은 1973년에 제정된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때문이다. 서울의 주택 정책 관련 통계에 따르면, 무허가 불량주택지를 정비한다는 목적하에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곳이 1973년 서울 내에서만 무려 143개 구역에 달한다. (서울연구원,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_데이터로 본 서울_주택재개발〉(https://data.si.re.kr/data/)

식 또한 같았다. 산업체 파견 목사로서 신을 믿으라고 포교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도 열악한 근로 환경과 맞닥뜨리면서 신학적 고민이 깊어진 것이다. 가령 '영산'의 산업전도목사였던 조지송은 이미 1962년부터 영등포에서 일했다. 1958년 당시에도 영등포는 "공장이 이미 60여 개나 들어서 있었고, 큰 공장에는 1,000~3,000명의 어린 여성들이 일하고 있을 정도로 노동자들이 밀집된 지역"[15]이었다. 현장에서 1년을 지낸 1965년 무렵부터 그는 노동자의 현실과 괴리된 공장목회 활동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16] 비슷한 회의는 '인천산선' 최초의 산업선교 목사였던 조승혁에게서도 발견된다. 당시 인천의 대성목재에서 일했던 그는 삼시 세끼를 챙겨 먹기도 힘든 마당에 "교회의 언어는 노동자들에게는 교인들끼리만 쓰는 은어"[17]나 다름없더라고 회고한다. 인천의 대성목재는 은강으로 이주한 난장이의 아내, 즉 영수의 어머니가 원목의 껍질을 벗겨 팔았던 저목장(貯木場)의[18] 모델이 되었던 바로 그곳이다.

『난쏘공』의 후반부를 이루는 은강연작은 행복동을 떠나 은강에서 공장노동자가 된 난장이의 아들딸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난장이의 큰아들 영수는 '은강자동차', 작은 아들 영호는 '은강전기', 딸 영희는 '은강방직'에

14) 당초 공장에서 이루어지던 교인확장운동 형태였던 '산업전도(Industrial Evangelism)'가 '산업선교(Industrial Mission)'로 재정의된 것은 1968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동아시아교회협의회(EACC) 도시산업선교연구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산업선교는 '복음'의 전달을 통한 교인의 확장이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제반 문제와 상황 전체 속에 놓여 있는 인간 삶의 문제"(67)를 선교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을 겪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의 노동자 문제에 주목했다. (장숙경, 『산업선교, 그리고 1970년대 노동운동』, 선인, 2013, 65-67면.)

15) 위의 책, 42면.

16) 조지송 목사는 예수교장로회의 제1기 산업전도목사였다. 그는 "공장목회라는 것이 곧 노동자를 교화하는 억압장치"라(위의 책, 56면) 표현하고 있다.

17) 위의 책, 57면. 조승혁 목사는 미국 감리교단 파견 산업전도 목사인 조지 오글(George E. Ogle, 오명걸)의 지침에 따라 목사 신분을 감추고 직접 노동자의 신분으로 인천 대성목재 합판부에서 일했다고 한다.

18) 「클라인씨의 병」, 204-205면.

취직한다. 「기계 도시」는 1883년 개항한 이후 국제적 무역항이 되고 산업 도시로 발전했다는 은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 은강 공업 지대는 금속 · 도자기 · 화학 · 유지 · 조선 · 목재 · 판유리 · 섬유 · 전자 · 자동차 · 제강 공업이 성하고, 특히 판유리는 한국 최고의 존재로 교과서에 나와 있다. (중략) 공장 지대는 북쪽이다. 수없이 솟은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오르고, 공장 안에서는 기계들이 돌아간다.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일한다. 죽은 난장이의 아들딸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19]

「기계도시」의 화자는 앞서 「우주여행」에서 대학생 지섭에게 과외를 받았던 윤호로 설정되어 있다. 윤호는 아버지인 율사(律士)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대입 시험들을 무성의하게 치러 현재 삼수(三修) 중이며, 그 사이 난장이의 큰아들을 만나며 노동문제에 눈을 뜨게 된다(「궤도회전」). 윤호는 난장이의 아들인 영수가 은강에 오던 첫날밤을 '노동자교회 사무실'에서 세웠다며, 영수가 그곳 사무실에서 보았다는 공장 노동자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소개한다. '원하는 직장요건'을 묻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답은 '임금을 많이 주는 직장 (8.4)'이 아니라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직장(71.6)'이며, '작업 피로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항상 피로하다(59.8)'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자료이다. 이 항목의 마지막 문항은 '우리나라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가'를 묻고 있으며, 그 대답은 '그렇다(41.3)'와 '좀 어려운 이야기다(33.5)'가 비슷한 비율로 집계되었다.[20] 인간적 대우를 못 받으며 항상 피로감을 느끼며 일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긴 자료라 할 수 있겠다.

---

19) 「기계도시」, 159-160면.

20) 「기계도시」, 162-163면.

작중에 등장한 노동자교회나 교회 측의 설문지는 실제 산업선교 목회자들의 활동 방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21] 설문 결과는 물론 종교와 현실의 괴리를, 신의 '말씀'이 침투할 여지라곤 없는 고단한 삶의 면면을 담아낸다. 다만 세상 만물의 운명을 관조할 뿐 개입하지 않는 절대자를 향한 절망은 난장이 연작 중 하나인 「신에게도 잘못은 있다」의 표제 자체에서도 감지된다. 이렇듯 무심한 신에 대한 환멸이 당대 '실천신학'이라는 대안으로 이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정치와 법의 영역이라 할 노동자 문제에 종교가 직접 개입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신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의 고단한 육체에 깃든다는 '성육신(Incarnation)'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 가. 하나님이 성육신 되셨다는 사실은 배반한 백성을 찾으셨다는 것인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 그들과 같이 생활하셨다. 그러므로 산업선교회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에 나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자리에서 노동자에 자리로 옮겨 그들과 같이 노동하며 생활함으로서 말씀이 육신되신 것과 같이 몸으로 증거하는 것이다.[22]

---

21) 1970년 전태일의 분신, 1971년 김진수 사건(1970년 한영섬유 노조가 결성되자 사측이 노조 와해를 위해 행동대원을 고용하여 노조탈퇴서 작성을 종용하다 이를 거부하는 김진수의 머리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을 겪으며 산업선교회는 소속 교단과 갈등을 빚는다. 그 결과로 인천산선은 1971년 자체적으로 노동자교회를 설립했고, 영산(영등포산업선교회)은 교회라는 형식 자체를 부인하고 노동조합이 곧 교회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렇듯 과격한 대응은 소속 교단과 교회 측의 강력한 반발과 지원 중단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1970년대 말에 이르러 활동이 쇠퇴 및 중단되는 원인이 되었다. (장숙경, 앞의 책, 94-96면.)

22) 조화순, 「방적 산업의 실태와 신학적 의의 -"동일방직회사를 중심으로"」,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등록번호 00446386, 1968.10, 10면. 이 문건에서 조 목사는 산업선교의 개념을 1) 성육신, 2)구원, 3)십자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앞서 제시한 1) 성육신 항목의 첫 조항인 위의 인용문과 이어지는 나)번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성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셨다. 즉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인간적인 생활을 했고 모든 세상제도에 참

위의 인용은 동일방직에서 산업선교 활동을 하던 조화순 목사가 서술한 보고서인 〈산업선교의 신학적 이유〉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 그는 노동의 현장에서 종교인이 감당할 역할에 대해 신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 육신으로 현현했듯이, '목사의 자리가 아닌 노동자의 자리'로 옮겨 '몸으로 신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산업선교회를 비롯한 종교계는, 기독교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공장 내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 뛰어들었다. 인천산선 및 영산에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교육, 노조 지도자 훈련, 노동관계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이나 노동조합 조직과 노사분쟁 같은 현장에도 개입했다. 특히 영산은 1960년대 중반부터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 등 지도자 역할을 할 인원을 따로 모아 심화된 지도자 훈련과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해당 과정은 '노동법, 단체교섭법, 노사관계법, 생산과 임금, 노동운동사' 등의 '6개월 코스의 전문 강의'로 마련되었다.[23] 은강 연작에는 노동자교회를 매개로 영희와 영수가 산업선교회와 연결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등장한다.

> 작업장의 실내 온도는 섭씨 삼십구도였다. 직기가 뿜어내는 열기가 영희의 몸 온도를 항상 웃돌았다. 무더운 여름의 은강 최고 기온은 섭씨 삼십오도이다. 직기의 소음도 무섭기 짝이 없다. 소음의 측정 단위는 데시벨이다. 정상적인 상태는 0데시벨, 50데시벨이면 대화를 할 수 없다. 영희의 작업장 소음은 90데시벨이 넘었다. (중략) 그 아이가 어느 날 저희 노동조합 사무실로 가 『노동수첩』을 받았다. 일이 끝나면 노동자교회에 갔다. 교회는 북쪽 공업 지역 안에 있었다. 목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24]

여했기 때문에 인간생활의 각 부분과 세상 모든 것이 그의 나라와 구속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산업선교회는 산업사회도, 공장도,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것으로 믿어 공장을 목회장소로 정하고 공장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찾아 증거하는 것이다.)

23) 서덕석, 『조지송 평전』, 서해문집, 2022, 80면.

> 나는 그(노동자교회의 목사-인용자 주)가 마련한 여섯 달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산업 사회의 구조와 인간 사회 조직, 노동 운동의 역사, 노사간 당면 문제, 노동 관계법 등을 배웠다. 정치 · 경제 · 역사 · 신학 · 기술에 대해서도 배웠다. 모두 열네 명이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 일요일 저녁까지 숙식을 함께 하며 배웠다. (중략) 그에게서 교육받은 열네 명이 공장으로 돌아가 어려운 일을 해냈다. 여섯 명은 조합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25]

위의 인용은 영희와 영수가 노동조합과 노동자교회를 통해 의식화되어 가는 과정을 담는다. 은강 방직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고통받던 영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자교회에 다니며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노조 활동에 참여한다. 영희가 노동자교회에서 받은 '노동수첩'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을 비롯하여 은강 방직의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법적 · 행정적 권리를 설명한 책자이다.[26] 첫째 영수와 둘째 영호는 당초 영희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두 사람에게는 앞서 행복동의 '벽돌공장'에서 임금 인상과 작업조건 개선을 사장에게 요구했다가 쫓겨나고, 공장 경영주들 간에 공유되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두 아들의 실직 상태는 난장이 아버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이다.[27] 그러나 영수는 막내 영희가 겪는 고통을 지켜보고 그 고통의 보편성에 괴로워하다 결국 노동자교회를 찾게 되고 노동운동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다.

영수는 노동자교회의 그곳의 목사를 통해 '사회조사연구회' 모임에 참

24)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176-177면.

25) 「클라인씨의 병」, 210-211면.

26) 「궤도 회전」, 138면. '노동수첩' 책자의 내용은 은강지구에 드나들며 '공원'들과 접촉하던 윤호에 의해 자세히 소개된다. 「궤도 회전」에서 율사의 아들인 윤호는 은강 그룹 창업주의 손녀인 경애에게 그 내용을 읽어준다.

27)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91-100면.;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177면.

여하게 된다. 영수는 그곳에서 여섯 달 과정의 노조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노동자교회의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은강대학 부설 노동문제연구원'에 나간다.[28] 이와 같은 영수의 교육 과정은 도시산업화와 노동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삼아 1960-70년대에 종교단체나 대학에서 관련 연구 단체들이 생겨난 상황을 담아낸 것이다. 인천산선의 산업선교 목사였던 조승혁이 직접 관여했던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나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표방한 강원룡 목사의 크리스찬아카데미가 종교단체의 범주에 속한다면,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서강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등은 학술단체로서 산업선교회와 연대했다.[29] 영수는 3주 내내 야근을 감내하며 은강대학 노동문제연구원의 교육을 받는다(「클라인씨의 병」).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노사분쟁 중인 은강방직 노조의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돕고, 노동자를 교육하고, 사측과의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등 노동운동가로 거듭난다.

영수가, 그리고 아마도 영수를 통해 작가 조세희 또한 산업체 자본가들에게 던지고 싶었을 문제의식은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에 담긴 노사협상 장면에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다. 아래는 그 중의 일부이다.

> 사용자 1: (근로자 요구 사항에 대한 회사 측의 답변을 – 인용자 주) "기다리지 말아요. 모든 걸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왜 우리의 발전을 부정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
> 근로자 1: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 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 근로자들이에요. 다만 그 혜택을 우리에게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경제를 위해 왜 저희들은 약해져야 됩니까?"[30]

28) 「클라인씨의 병」, 214면.
29) 장숙경, 앞의 책, 78면; 서덕석, 앞의 책, 265면.
30)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193면.

노동 현장의 문제와 근로 조건의 개선을 따져 묻는 근로자 측의 태도를 '경제 발전을 부정하는 태도'라 비난하는 사용자 측에 대해, 근로자 측은 '건강한 경제를 위해 왜 저희들은 약해져야 하느냐'고 항변한다. '건강한 경제'와 대비되는 '약한 근로자들'이란 의미는 다분히 중의적이다. 생산의 당사자임에도 부의 배분을 요구할 만한 이익집단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 외에도, 이 대조(對照)에는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대가로 내놓아야만 하는 이상한 당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겨 있다. 직관적인 만큼 더 강한 울림을 갖는 반문이라 할 것이다.

3. 죽은 이들의 외침과 영수의 선택

1) 존재 증명을 위한 죽음

미리 말하자면, 영수의 변모는 세계를 바꾸지도 미래의 희망을 만들지도 못했다. '은강방직 보전반 기사 조수'가 노조운동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은 곧 세상에 알려졌다. 고행의 길을 자초했던 만큼 그의 행보는 험난하고 불행한 것이었다.

> 난장이의 큰아들은 은강에 가 일하기 시작한 이후 수없이 울었다. 협박도 수없이 받고, 폭행도 당했고, 병원에도 입원했었고, 구류까지 살았었다. 그의 얼굴은 몰라보게 야위었다.[31]

영수는 협박은 물론 물리적인 폭행까지 당하고 은강 공장 사용자들의

31) 「기계도시」, 166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집중적으로 견제를 당하는 처지가 된다. 그러나 영수는 자신이 받는 고통보다도, 법이 보장한 조합 총회나 대의원 대회 등을 한 번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은강방직 지부장인 영이를 비롯해서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근로자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는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한다. 이에 「기계도시」는 '법대로 되는 것이 없는' 일방적 현실, 패배가 되풀이되는 현실에 절망한 영수가 윤호를 만나 윤호의 집에 묵게 해달라 부탁하는 장면을 담는다. 윤호의 옆집에 사는 은강그룹 경영주를 만나 그를 죽이겠다는 것이다.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는 윤호에게 거절당한 영수가 끝내 은강그룹 빌딩을 찾아가 경영주의 형을 경영주로 착각하고 칼로 찔러 살해했음을 알려준다. '우발적 살의'라는 변호인의 말과 달리 영수는 '인간을 생각하지 않은' 경영주에 대한 살인임을 분명히 한다. 영수에게는 사형이 선고된다.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꼽추'는 형무소를 바라보며 "난장이가 늘 자랑을 한 아들"이[32] 사람을 죽이고 '죽어 나왔다'고 이야기해준다.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 작가는 행복동의 집이 헐리고 자식들이 학교 대신 공장에 나가는 상황을 지켜보던 아버지 난장이가 자살하는 내용을 그렸다. 그리고 또다시 은강에서 노동운동에 나섰던 난장이의 큰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당하는 결말을 그린 것이다. 세습되는 가난과 희망 없는 노동에 맞닥뜨려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난장이 일가를 바라보며, 독자들은 아연할 수밖에 없다. 대를 이은 난장이 부자의 죽음이 보여주는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 작가 자신도 괴로워했던 정황과는[33] 별도로, 최악의 상황을 앞두고 고뇌할지언정 현실에서 비약하거나 전망을 과장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

32) 「프롤로그」, 273-274면.

33) 조세희는 짤막한 콩트인 「연극」에서 연극무대에 오른 두 명의 '나'를 등장시켜 난장이와 난장이의 아들을 죽인 자신을 비난하고 동시에 변명하는 장면을 썼다. 사랑과 희망을 뜻하는 이 인물들을 죽인 이유에 대해 그는 "난장이는 처음부터 죽어 있었어! 그를 죽인 건 내가 아냐.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썼어."라고 적고 있다.(조세희, 「연극」, 『시간여행』, 문학과지성사, 1983, 137면.)

조세희 문학의 미덕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폈듯이, 영수가 살인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는다는 내용은 은강 연작 중 마지막 에피소드인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 담겨 있지만, 영수가 살인 계획을 윤호에게 털어놓는 내용은 이미 은강 연작의 초입에 쓰인 「기계도시」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다. 즉, 영수가 살인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는다는 서사의 방향은 난장이의 죽음 이후 남은 가족을 은강으로 보낼 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의 추세를 멈추긴 역부족이라는 비관적 전망 자체는 돌려놓을 수 없다고 해도, 하필 그 비극의 지점에 영수의 죽음이 놓여야 했던 사정은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가족부양의 무게에 짓눌린 나머지 자신을 인간이 아닌 '벌레'라[34] 자인(自認)하고 죽어간 난장이와 달리, 난장이의 아들은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35] 현실적인 변화를 모색하다 '결과적으로' 죽음을 맞았기 때문이다. 난장이가 선택한 자살과 난장이의 큰아들이 받게 된 사형 선고, 능동적 의지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두 죽음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요컨대, 살인이 곧 죽음이라는 형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점에서 난장이 큰아들의 죽음은 또 다른 '선택'의 일환이다. 이 대목은 『난쏘공』이 쓰인 1970년대에 종교가 열악한 근로자의 삶을 바꾸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회에 개입했다는 전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난쏘공』은 종교가 비단 윤리도덕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정치사회적 원리가 되려고 했던 시대, 신의 뜻이라는 형식을 빌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나섰던 시대에 쓰였다. 종교가 절대적 초월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감내하는 육체와 합일되는 성육신의 논리를 빌어 실천적 수행의 형식으로 지상에 안착했다는 사실은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형식이야말로 관념적 비약이 어떻게 그 자체로 가장 현실에 육박한 실천으로 연결되는가를, 관념이 어

34) 「클라인씨의 병」, 219면.
35) 「클라인씨의 병」, 209면.

떻게 그 자체로 현실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영수의 죽음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죽음을 되풀이하는 사례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허망하고 느닷없어 보이는 영수의 죽음은 절망과 분노의 끝에서 그가 선택한 행위인 만큼 실천적 수행의 관점에서 읽어낼 필요가 있다. 죽음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었던 그 절박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실상 영수의 선택적 죽음이란, 1970년대가 전태일의 죽음과 더불어 열렸음을 감안한다면 낯선 것이 아니다.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은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내하다 못해 독학으로 근로기준법을 공부한다. 그로부터 일어난 사회적 관심이 결국 공장주와 관료들의 기만과 배신으로 무마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분신을 선택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말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죽음밖에 없었다는 것, 즉 죽음으로만 삶에 대해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의 죽음이 보여주는 잔인한 역설이다. 영수 역시 법전에 근거한 노사 간의 합의를 끌어내려 노력했었다.

> 사용자 1: "아뇨, 그 말이(노조원들은 감옥에 가야할 아이들이라는 다른 사용자의 말-인용자 주) 맞습니다. 밤반, 오후반 아이들이 밖에 몰려 있습니다. 얘들이 조합원을 선동하여 단체 행동을 하겠다는 게 분명해요. 얘들은 법을 어기고 있어요."
>
> 근로자 1: "아녜요. 궁금해서 모여 서 있는 거예요. 설혹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저희들은 하나를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달라요. 저희가 어쩌다 하나인 데 비해 사용자는 날마다 열 조항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36]

그러나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법을 근거

36)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201-202면.

로 권리를 주장하는 장면을 담는다. 이 노사협의는 결렬되고 은강방직 근로자들의 파업과 농성으로 이어진다. 법적 절차를 통해 그날 밤 영수는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을 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믿었던 아버지의 생각을 긍정하기에 이른다. 아버지의 법에는 무허가주택의 철거 및 거주자의 퇴거를 규정하는 법적 조치에 저항하지 못하고 죽음까지 내몰린 자의 원념이 서려 있다. 현실이란 이상한 것이어서, 모두가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호소가 힘을 얻지 못한다. 즉, 사랑이란 누구에게나 합당하고 보편적인 이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사랑조차도 실현되려면 법적 통제의 힘을 지니는 수밖에 없다. 사랑하기 위해서도 법이 필요하다는 아이러니를 비로소 난장이의 아들도 수긍하게 된 것이다.

영수의 살인과 그에 이어진 재판과정은 그가 생명을 걸고서야 얻어낼 수 있었던 발언의 기회이다. 영수는 약탈적 노동으로 고통받고 이제 파업에 따른 탄압으로 또다시 고통받는 은강방직 근로자들을 보고 고민하던 끝에, 경영주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물론 착오로 경영주의 형을 살해하긴 했으나, 체포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영수의 재판을 다룬 에피소드인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는 은강방직 경영주의 아들인 경훈의 시선에서 서술되어 있다. 경훈은 시종일관 국가 성장에 이바지하는 기업의 구성원이자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와 급여를 주는 경영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촌들과 후계자 경쟁을 벌이는 재벌가의 일원으로 사건을 대한다. 은강그룹 후계자의 시선으로 재판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작가는 살인을 미화하거나 두둔한다는 서사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밖에도 이러한 설정은, 생명을 걸어야만 말할 수 있다는 이상한 전제가 비단 잔혹 동화 속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차원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경훈은 숙부를 죽인 중죄인이니 '당장 죽여서 은강공장 지대에 달아도' 시원치 않을 난장이의 큰아들이 "교도관의 보호를 받아가며, 계속 법정에 나와"[37] 서는 광경을 지켜본다. 이 법정에서 난장이의 큰아들은 범죄 혐의를 시인하되, 경영주를 죽인 폭도가 세인들이 생

각하듯 분노 조절에 실패한 '우발적 살인'도 아니고 분노조절을 할 수 없는 '정신분열증'도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살해 동기는 순전히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자'에 대한 단죄임을 분명히 한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노동운동가 지섭은 영수의 살인이, 경제적 생존권을 쥐고 있는 경영진을 향한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라 주장한다. 그는 자신과 난장이의 큰아들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다 같은 하나의 생산자이자 인간'이라는 점을 의식했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논리에 선다면, 영수의 살인은-아버지의 말처럼-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을 벌하는 방식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난쏘공』 연작들이 발표되던 시기와 거의 동시대에 발생했던 '무등산 타잔 박흥숙 사건'은, 영수가 저지른 살인 사건의 실사판이라 부를 만하다. 박흥숙은 1977년 4월 거주지인 무등산 덕산골의 움막집이 철거되는 것을 저지하다 철거반원 다섯 명에게 상해를 입혀 네 명을 살해하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된다. 당초 그는 언론에 의해 비틀린 영웅심리를 지닌 사회부적응자이자 폭도로 떠들썩하게 조명되었으나, 실상은 부친의 죽음 이후 개발제한구역인 무등산까지 밀려나 움막집을 집고 살았으며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가난한 청년임이 뒤늦게 밝혀졌다. 재판에 회부된 그는 비로소 무허가촌락 사람들을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명분에 가려진 백성의 고통에 대해 말할 기회를 얻었다. 이에 일부 정치인과 지역 인사들에 의해 구명위원회가 꾸려지고 박흥숙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고도 경제성장에서 생겨난 소외된 이웃이자 도시 빈민 지구의 무주택 문제가 첨예화한 표현'이라 규정하지만, 결국 구명되지 못하고 그해 5월 최종심에서 사형을 받아 1980년 12월 형이 집행되었다.[38] 비록 그 원인의

37)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249면.

38) 박흥숙 사건에 대한 진실은 김현장, 「무등산 타잔의 진상: 무책임한 신문보도를 폭로한다」(『월간 대화』, 1977.8), 「이 불쌍한 무등산 청년의 죽음과 죽임」(『뿌리깊은 나무』, 1978.8)에 의해 알려졌다. 박흥숙 사건에 대한 경과와 리뷰는 이영진, 「'범죄'의 재구성: 1977년 무등산 철

지점은 다르지만, 『난쏘공』의 서사와 박흥숙 사건은 무허가주택의 철거라는 동기와 집행자의 살인 및 사형이라는 주요 경과 지점이 묘하게 겹쳐진다. 법의 일방적 운용과 그로 인해 삶의 벼랑으로 몰린 사람들, 그 지점에서 벌어진 살인과 그로 인해 재판정에서 비로소 얻어진 발언의 기회까지 닮아있다.

그러나 영수의 살인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된 '단죄'라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전태일, 박흥식, 나아가 YH 사건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죽음들을 관통하는 시대적 정서를 단순히 사회를 향한 분노라 뭉뚱그리는 태도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수학선생은 학생들에게 학교를 떠나 우주로 가겠다며, 아래와 같이 묻는다.

> 서쪽 하늘이 환해지며 불꽃이 하늘로 치솟으면 내가 우주인과 함께 혹성으로 떠난 것으로 믿어달라. 긴 설명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아직 알 수 없는 것은 떠나는 순간에 무엇을 대하게 될까 하는 것뿐이다. 무엇일까? 공동묘지와 같은 침묵일까? 아닐까? 외치는 것은 언제나 죽은 사람들뿐인가?[39]

거반원 살해 사건을 둘러싼 물음들」(『비교문화연구』20(1), 2014.1, 6-36면 참고.) 이 논문의 저자는 푸코의 논의를 인용하여 박흥숙이 살인을 통해 "재판, 그리고 최후진술이라는 언어를 통해 자신과 같은 하층민들을 버렸던 세상과 교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25)고 평가한다. 한편, 김현장의 르뽀가 연재된 시기를 비롯하여 박흥숙 사건 발생(1977.4), 사형 언도(1979.5), 사형 집행(1980.12)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난쏘공』 연작, 특히 은강 연작의 발표 시기와 겹쳐진다. 실제로 작가 조세희가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기관지인 『대화』를 통해 김현장의 르뽀를 읽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대화』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기관지로서, 조세희는 사북탄광 사건과 재판 기록 등을 토대로 『침묵의 뿌리』에서 동일방직 노동자 석정남을 소개하며 "그 70년대에 「불타는 눈물」을 쓴, 그리고 얼마 전에 「공장의 불빛」을 써 책으로 묶어낸 석정남"(『침묵의 뿌리』, 열화당, 1985, 63면.)이라 적고 있다. 석정남의 수기인 「불타는 눈물」은 『대화』 1977년 12월호에 발표되었다.

39) 「에필로그」, 276면.

'외치는 것은 언제나 죽은 사람들뿐인가'라는 문장과 '죽은 사람들만이 외칠 수 있다'는 문장의 차이는 엄연한 것이다. 전자에는, 후자가 표현하는 저항과 선동의 결기가 없다. 1991년 분신정국이 그러했듯이 죽음을 통해서 정치적 저항의 최대치를 표현하는 전술적인 차원의 전략과는 다르다는 의미이다. 전자는 산 사람의 호소란 도무지 통하지 않는 단절된 세계, 혹은 말해야 하는 자들이 입을 닫은 침묵의 세계를 전제로 한다. 그 완강하게 닫힌 세계에는 불행하고 억울한 죽음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 '외치는 것은 언제나 죽은 사람들뿐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렇듯 닫힌 세계에서 발언할 방법이란 정녕 죽음밖에 없는 것이냐는 비관이 깔려있다. 죽음을 통해서만 살아 있다는 존재 증명이 가능한 역설적 시대에 대한 절망인 것이다.

2) 현장성과 당사자성

'외치는 자는 죽은 사람들뿐'이냐는 탄식은 달리 보면, 말해야 하는 것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세태에 대한 탄식과 같은 의미가 되기도 한다. 앞서 「난쏘공」의 영희가, 난장이 가족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과 일가의 보전에만 신경을 쓰는 이웃을 향해 "죄인들은 아직 잠자고 있다"고 분노했듯이, 조세희의 소설에는 타인의 고통을 담보로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것은 죄악이며 그 부조리한 구조를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혹은 '아는 척'하는 것 또한 죄악이라는 전제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은강 연작의 첫머리에 놓여 있는 「궤도회전」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는 난장이 가족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한 윤호와 그의 옆집에 사는 은강그룹 경영주의 딸인 경애가 등장한다. 경애는 지역 성당에서 또래 청소년들과 함께 '십대 공원'에 대한 토론을 주최한다. 윤호는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부끄러움도 없이 이야기한다며 이들을 비판하고, 특히 그들의 고통을 대가로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경애에게

“이제 네 죄에서 네가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한다.[40)]

당대 한국사회의 분배정의를 문제 삼는 조세희의 논리 속에서는 도시 개발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자,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결백할 수 없다. 약한 자의 자산과 노동을 빼앗아 사회적 인프라가 마련되는 구조이기에, 이렇듯 약탈적인 자본의 피라미드 하층을 딛고 서서 상대적인 부를 누리는 이들은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피라미드의 아래층이라 하더라도 부를 향한 욕망까지 균질한 것은 아님은 물론이다. 이는 조세희의 소설이 표면적으로 부자-빈자, 자본가-노동자 같은 선명한 대립 구도를 제시하곤 하지만, 실상은 너나없이 죄인으로 가득 찬 세상과 대면하고 있다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분법적 도식화란, 가늠할 수 없는 실재의 암흑에 마주 선 작가가 가능한 한 사태를 단순화하여 윤리 · 도덕적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선택한 서술적 전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작가에게 진실로 문제적인 상황이란 죄를 죄라고 인식조차 못 하는 이들이 숱하게 많다는 것이겠고,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고통을 감당하기에 결백한 당사자가 아닌 이상에는 그 죄를 벗어날 도리가 없다는 것이겠다. 요컨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박해받는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죄인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고 이에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러한 도덕주의적 강박은 조세희의 글쓰기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작중 인물 누구도 이러한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며, 심지어 난장이의 아들로서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영수도 예외는 아니었다. 「클라인씨의 병」에서 영수는 노사협의의 요구사항이나 대응방식을 은강방직의 노조지부장인 영이에게 학습시킨 장본인이면서도, 정작 그 결과로 노조원들이 고초를 겪는 현장을 뒤로 하고 농성 현장을 홀로 빠져나왔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 이러한 영수의 죄책감을 정면으로 공격한

40) 「궤도회전」, 153면.

인물이 바로 지섭이다. 행복동을 떠난 뒤에 노동운동가로 변신한 그는 노동자교회의 사회문제연구회나 은강대학 노동문제연구소 등에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배후에서 활동하는 영수를 강하게 비판한다.

> "그래서, 뭘 얻었니?"
> "눈을 떴어요."
> "너는 처음부터 장님이 아니었어!"
> 지섭이 큰 소리로 말했다.
> "현장 안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뭘 배워? 네가 오히려 이야기해줘야 알 사람들 앞에 가서 눈을 떴다구? 장님이 돼버린 거지, 장님이. 그리고, 행동을 못하게 스스로를 묶어버렸어. 너의 무지가 너를 묶어버린 거야. 너를 신뢰하는 아이들을 팽개쳐버리구."
> (중략)
> "제가 할 일은 뭐예요?"
> "현장을 지키는 일야."
> "제가 일하는 곳이 현장야요."
> "그럼 그곳을 뜨지 말고 지켜. 그곳에서 생각하고, 그곳에서 행동해.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부딪치는 그 지점에 네가 있으라구."[41]

현장을 지키라는 지섭의 당부는 본래 자신의 자리를 회피하지 말고 지키라는 의미도 된다. 외부의 누구도 현장 '안'에 있는 당사자들만큼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클라인씨의 병」에 등장하는 두 개의 알레고리 즉 '장님나라의 애꾸눈 왕' 및 '클라인씨의 병' 삽화는, 현장의 '밖'에 머물며 '안'을 지켜보던 영수가 현장의 '안팎'을 아우르는 실천적 · 인식적인 전환을 이루어냈음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외부의 지식에 매달려 오히려 현장을 보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순간 영수는 비로소 자신의 눈을 의심

41) 「클라인씨의 병」, 222-223면.

하여 다른 반쪽 세계가 존재함을 알게 된 애꾸눈 왕이 된다. 또한 현장이 지식과 행동의 원점임을 인정하는 순간 영수는 '안팎이 없는데 닫힌 공간이 있다'는 과학자의 설명을 그 근본부터 해체하고 '안팎이 없으니 막았다 할 수 없고, 그러니 갇혔다는 것이 착각'이라는 자신의 관점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42]

노동운동 전략이 외부의 교육으로부터 올 수는 없으며, 현장의 주인인 근로자들 내부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섭의 주장은 1970년대를 통과하면서 변화하는 노동운동계의 지형과도 관련이 있다. 가장 뚜렷한 증상은 1960년대부터 노동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산업선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노동운동 단체의 쇠퇴이다.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한다는 특성상 그 활동의 제약은 외부와 내부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유신정권은 산업선교를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려는 용공세력이라 규정하고 그 위험성을 방송 및 언론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부각시켰다. "도산(도시산업선교)이 들어가면 도산한다"는 식의 조어를 퍼뜨린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43] 1979년 3월 노동운동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던 크리스찬아카데미 관련자들이 용공 분자 혐의를 받아 대거 체포되었다. 1980년 12월 신군부가 계엄령하에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해고 및 축출

42) '클라인씨의 병'은 많은 논자들이 주목했던 메타포이다. 가령 우찬제는 자본가와 노동자, 거인과 난장이 같은 극단의 존재들이 서로 융화하고 화해하는 자리(지평)를 마련하기 위해 안과 밖, 내부와 외부의 구별이 없는 '뫼비우스의 띠'나 '클라인씨의 병' 같은 개념을 도입한다고 보았다(우찬제, 「대립의 초극미, 그 카오스모스의 시학」,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1997, 304면.) 위의 견해는 이 메타포들을 해석하는 표준적인 독법으로 굳어진 듯하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인씨의 병'과 '장님나라의 애꾸눈 왕' 삽화를 겹쳐 놓아 영수의 인식적 지평이 확장되는 순간에 주목하였다.

43) 장숙경, 앞의 책, 333면.
이러한 대중홍보 정책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장숙경은 1980년에 이르러 TV 보급률이 80%를 넘어갔던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매스컴은 시사 기획이나 뉴스를 통해서 도시산업선교회를 사교 집단이나 혁명세력, '해방신학을 바탕으로 사회전복을 꿈꾸는 좌익 용공세력' 등으로 집중 조명했다. 그 결과 영등포 산업선교회관 옆에 사는 아이들까지 '그곳은 공산당이 있는 곳'이라 말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같은 책, 352-357면.).

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쟁의에 다른 세력의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신설"한[44] 것은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다. 교단 내부에서도 교리를 부정하고 반정부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선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45] 이에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표적인 산업선교 조직인 인천산선이나 영산은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 후퇴의 과정은 씁쓸한 것이었다. 1972년 노조의 설립 시기부터 협박과 회유, 농성과 시위로 점철된 동일방직 사태는 마침내 1978년 노동자 126명의 대량 해고와 기약 없는 복직투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당장의 생계문제에 내몰린 근로자들은 민주노조를 사수하라 주문하는 목사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인천산선은 대량해고로 인한 동일방직 노조의 와해 이후 노동운동의 거점을 잃었고, 이후 정치적 탄압을 피해 1978년경부터 노동문제를 떠나 유치원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바꾸었다.[46] 요컨대 당대 동일방직의 파업과 대량 해고

44) 위의 책, 349면.

45) 1978년 5월 영산을 이끌던 인명진 목사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다. 정부는 성경에 의거한 활동을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는 기독교 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석방한다. 그러나 이 사태 이후 1964년부터 영산을 지원해 오던 영락교회는 1978년 말에 재정지원을 중단한다(위의 책, 325면.)

46) 당시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의 회고는 전반적으로 노동운동의 인식을 심어준 사실에 대해 산업선교 실무자들에게 고마워하지만, 해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노동운동가가 되라고 주문하는 실무자들을 요구를 따르긴 어려웠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목사와 자신들의 '계층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장숙경은 '산선 목사와의 괴리를 통해 비로소 온전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라 해석한다(271). 한편 영산의 가장 큰 운동 거점이었던 원풍모방 노조가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관리하에 노조 해체를 겪고 복직 운동을 전개하는 도중에 영산 측이 결별을 요구한 것 또한 산업선교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상징적 장면이라 할 수 있겠다. 산업선교회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그로 인해 생겨난 내외부의 갈등과 해체에 대한 상세한 흐름에 대해서는 장숙경, 앞의 책, 269-283면을 참고.

사태는 사회개혁의 소명을 앞세운 산업선교 관계자들과 절박한 생존의 현실에서 그들의 뜻을 따랐던 근로자들의 관계가 그 근본에서부터 뒤흔들리는 사태를 불러왔다. 일부 헌신적인 실무자들이 교단과 갈등을 빚으며 지속해오던 사업인 만큼 그들이 신념을 포기한다면 산업선교회의 노동운동은 지속될 수 없었다. 아울러 이러한 신념은, 당장의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이들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실현될 성질의 것도 아니었다. 은강 연작이 쓰인 1976-78년간은 이렇듯 노동운동의 동력을 밖에서 구하는 상황에 대한 현실적 회의가 뚜렷해지던 시기였다.

나아가 현장성에 대한 영수와 지섭의 대화는 단순히 전술적 차원의 반성을 넘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딪치던 자리를 지켜왔던 실제 존재들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한다. 노사협상이 결렬되고 영수가 떠나오던 자리에 남아 있던 존재들, 즉 노조지부장 '영이'와 그를 지지하는 '영희'로 대변되는 '여공'들이다. 은강 연작에서 영희는 은강방직에 취직한 뒤 노동자교회에 나가고 노동조합에 가입한다. 노동자교회의 신자가 되어 예배에 참여하고, 지부장 영이를 돕고 노조의 농성에 참여한다. 영수는 영이를 교육시켜 노조협상에 근로자측 대표로 참여하도록 하고, 지섭 또한 이들을 상대로 노동자교회에서 강연한다. 그러나 은강 연작에서 영희나 영이를 비롯한 여성 근로자들의 존재감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물론 그 이유는 서사 내부의 흐름 속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은강 이주 이후 가족의 안정과 무탈함을 바라는 어머니는 장남 영수의 변화에 온 신경을 쏟을 뿐 영희의 변화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노동자교회에 접촉하고 노조 사무실에서 노동수첩을 받아오는 변화는 영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음에도 말이다. 행복동에서 두 형제의 실직을 경험했던 어머니는 점차 노동운동에 기우는 아들을 만류하고 침묵하라 당부한다. 어머니의 시선은 대의를 좇는 일이란 곧 사적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는 냉정한 현실을 끊임없이 환기시킨다. 작가 조세희의 문제의식과 연결시켜 본다면, 어머니의 현실적 논리는 '죄인으로 가득한 세상'이 생겨나는 원인이기도 하고, 동시

에 '죄악을 벗어나야 한다'고 쉽게 주장하기 힘든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홀몸이 아니라 가족의 운명을 짊어진 가장인 영수의 공적 회심(回心)과 선택이 갈등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고, 실제 노동 현장을 담당했던 여성 근로자인 영희나 영이의 존재는 배경으로 밀려나게 된다.

섬유, 의류 등 경공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근무하면서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감내하던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이들이 고향의 가족을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은강연작의 서사적 선택은 아쉬운 대목일 수 있다. 이때 1960년대에 시작된 산업선교회의 운동방식 자체가 '노동운동은 남성의 영역'이라고 보아,[47] 그 목적을 노조 지도자의 양성과 훈련에 두었기에 처음부터 남성 근로자를 포섭하려 시도했다는 사실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양상은 유신 체제 성립 직전인 1971년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법적으로 제약되면서 뒤바뀌게 된다. 회사 측의 주목을 받는 사내에서의 조직적 활동을 부담스러워하는 남성 근로자들이 노조를 빠져나가자, 취미나 사교 생활을 함께 나누는 소그룹의 형태로 여성 근로자들을 조직화하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1972년 동일방직에서 한국노동조합 역사상 최초로 여성지부장이 선출된 것이나, 반도상사, YH 무역 등을 비롯하여 1977년 현재 "전국에 걸쳐 11개 노조, 56개 분회에서 여성이 지부장이나 분회장에 선출"되어 말 그대로 노동운동이 '여공'에 의해 대표되는 시대가 가능해졌던 것이다.[48]

47) 장숙경, 앞의 책, 109면.

48) 위의 책, 115면. 직접 인용 외에 본문에 서술된 산업선교회의 노동운동사에서 여성 근로자의 참여 양상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책 109-118면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한 것이다. 1970년대 '여공'생활과 노조활동을 증언하는 수기류에서 산업선교와 목사 관련 언급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관련하여, 여성 노동자들과 당대 산업선교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배하은, 「흔들리는 종교적 · 문학적 유토피아-1970~8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살펴본 노동자 장편수기 연구」, 『상허학보』(56), 2019.6, 401-443면 참고.

4. 어떤 양자 대면, 두 명의 영희

작가가 "『난쏘공』에 이어지는 작품"이라 언급했던 작품인[49] 「천사의 달」은, 노동운동 현장에서 여성 근로자의 역할을 포함하여 실제로 전작 『난쏘공』에서 남겨진 과제들을 해결하려 시도했던 흔적을 보여준다. 「천사의 달」(『조선일보』, 1981.7.7.~11.13)은 1981년 신문연재소설의 형태로 발표되었으며 총 111회가 연재되었다.[50] 중심인물은 영수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은강그룹 후계자 경우, 중산층 부모를 둔 대학 초년생 영희이다. 경우는 앞서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서 사촌인 경훈에 의해서 "아버지를 죽인 자의 계획 살인을 정당방위로 우겨 주위 사람들을 갑갑하게 만들었"다고[51] 서술되었던 바로 그 인물이다. 경우는 은강 재벌이 모은 재산이 사유재산이 될 수는 없으며 아버지의 유산을 사회를 돌려주겠다고 말해 은강그룹의 경영주인 큰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을 아연하게 만든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섬을 개발하여 마을을 만들고 그곳을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털어놓는다.[52] 영희는 돈과 권력에 집착

49) 최인애, 「조세희 소설에 나타난 희망의 정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3-4면. 최인애는 조세희 작품의 서지사항을 가장 면밀하게 검토한 필자이다. 그에 따르면, 조세희는 난장이 연작이 마무리되고 단행본(1978.5)으로 묶인 이후, 『문예중앙』 1979년 봄호에 「철장화」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한다. 그는 「철장화」의 프롤로그에 "나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이어지는 작품을 『천사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쓰기 시작했다"며, 당시 건강 문제로 일곱 달 동안 글을 쓰지 못했고, 그때 중단한 것을 고쳐 이어쓰는 것이 이 작품(「철장화」)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철장화」 또한 한 회 분량밖에 발표되지 않았고, 이후 2년이 지나 1981년 7월 조선일보에 「천사의 달」이라는 원래의 제목으로 연재가 시작되었다. 최인애는 당초 「철장화」에는 주인공으로 경우와 함께 과학자의 딸 이영이 등장했으나, 「천사의 달」에는 중산층의 딸 영희로 바뀌었으며, 이는 1981년의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춘 결과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50) 「천사의 달」은 1981.7.7.부터 11.13까지 약 넉 달 간 총 112회 연재되었다. 이 가운데 제48회(8.30) 분량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로는 총 111회가 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48회는 제4부의 마지막 회차로서, 현재 제5부의 첫 회차는 제4부와 다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제48화가 누락된 것인지 본래 쓰이지 않았던 것인지는 내용상으로 판별이 어렵다.

51)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234면.

하지 않는 경우에게 애정을 느낀다. 최초에 영희는 경우의 태도가 동정심이자 자기기만일 뿐이라며 냉소하고, 자신의 애정이 혹시 그의 돈 때문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한다. 스스로 '반성하는 중산층'을 자임하는 영희의 어머니 또한 경우와 영희의 교제를 반대한다. 그러나 가족에게 핍박받는 경우를 보며 영희는 경우의 꿈을 지지하게 되고, 여기에 경우의 사촌동생(경훈의 동생)인 경애와 율사의 아들인 윤호가 경우를 돕겠다고 나선다. 경애와 윤호를 통해 경우와 만난 지섭은 경우의 계획을 듣고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해괴망측한 도덕주의의 냄새'가 싫고, '책임은 언제나 너희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투'가 못 미덥다며 경우를 비난한다.[53]

「천사의 달」의 서사적 갈등은 재벌과 중산층이 계급적 이익을 포기하고 '죄악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 속에서 진행된다. 난장이와 난장이의 아들이 원했던, 그러나 실패했던 '사랑의 세계 만들기'를 다시금 과제로 삼은 셈이다. 사회적 권력도 발언의 기회도 없었던 '서발턴'들이 해내지 못했던 일을, 재벌과 부르주아는 해낼 수 있을까. '사랑의 세계'에 대한 구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경우와 영희가 가출하여 '작은 섬'으로 들어가는 제5부의 내용부터이다. 영희는 대학 등록을 거부하고 가출하여 경우와 섬으로 들어간다. 그 섬에서 영희는 경우가 난장이 큰아들의 가족을 돌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작가는 이 지점에 독특한 장면을 배치한다. 경우를 따라 섬으로 들어온 영희가 어머니와 섬에 와 살고 있던 영희를 만나는 것이다. 대학생 영희와 '여공' 영희의 대면이자, 노동자 영희와 중산층 영희의 대면인 것이다. 작가는 부르주아 영희를 '우리 영희' 혹은 '죄의 덩어리인 영희'로, 영수의 동생 영희를 '다른 영희'라고 불러 구분한다.

다른 영희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우리 영희가 따라 웃었다. 이상한 일

52) 「천사의 달」(41), 1981.8.22.

53) 「천사의 달」(47), 1981.8.29.

이었다. 그때 우리 영희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두 영희는 출생부터 달랐다. 우리 영희의 출생은 아주 따뜻한 것이었지만 다른 영희는 그렇지 않았다. 너의 첫울음이 비명으로 들렸다는 어머니의 말을 다른 영희는 들었다. 그 아이는 태에서 충분한 영양을 보급받지 못했다. 우리 영희의 첫 호흡은 편안하고 달콤한 것이었지만 다른 영희의 첫 호흡은 불길처럼 뜨거운 것이었다. 성장기반도 달랐다. 우리 영희에게는 선택할 것이 많았다. 다른 영희는 주어지는 이외의 것을 가져본 경험이 별로 없었다.[54]

'다른 영희'의 등장은 '우리 영희'에게는 마치 거울같은 것이어서, 영희는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되돌아보게 된다. 두 사람의 삶은 그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출생 때부터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영희'는 '다른 영희'를 통해, 세습되는 가난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애쓰다 목숨을 잃은 난장이와 난장이 아들의 사연을 알게 된다. 다른 영희는 자신의 가계에 대해 "나는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인"으로 조상은 노비였다고 설명하는데,[55] 이는 「난쏘공」에 등장했던 부계 중심 노예의 족보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것이다. 「천사의 달」이 보여주는 모계 중심 노비의 족보는 작가가 동일방직 사건과 '여공'들의 집단 해직 사태를 의식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난쏘공』과는 달리 「천사의 달」이 여성 중심의 노동운동사를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작중에 '다른 영희'가 동료들과 서로의 근황을 전하기 위해 받아보는 〈친구들 소식〉이라는 회보는 실제로 동일방직 해직자들이 만들었던 〈동지회보〉를 모델로 한 것이다.[56]

54) 「천사의 달」(60), 1981.9.13.

55) 「천사의 달」(61), 1981.9.15.

56) 「동지회보 창간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78784)
1978년 12월에 창간한 〈동지회보〉는 해고된 동료들의 근황과 다짐을 받아서 실었다. 산문,

막상 자신과 닮았지만 '다른 영희'를 대면한 일은 영희의 내면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영희는 경우의 계획에 온전하게 찬성하지 못하는 자기 내면의 위선과 두려움을 의식하게 된다. 해고된 '여공' 영희의 정신적 건강함을 바라보며, '부르주아' 영희는 부의 축적과 신분 상승의 욕망을 부인해 왔으나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고심 끝에 영희는 은강의 교회에서 〈친구들 교실〉을 열고 '소년공'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 선배(지섭)를 찾아간다. 은강방직에 위장취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섭은 경우의 계획에 반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희의 결심 또한 '자기학대'일 뿐이라 냉소한다. 이에 영희는 지섭에게 '기회주의자'라며 공격을 퍼붓는다. 이 대목에서 영희와 지섭의 대면은 학생운동 선후배 세대의 만남이 된다.

> "… 마치 전설처럼 인물처럼 각색돼 떠도는 선배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아이들은 이제 없어요. 선배가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식사를 하고, 더 나쁜 옷을 입고, 수도사보다 더 금욕적이고, 더 어려운 생활을 한다고 해도 선배를 존경할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이젠 여길 떠나세요."
>
> (…중략…)
>
> "선배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아이들이 선배가 싫어서 안 와요. 선배처럼 책 몇 권 읽고 버티려는 애들이 아녜요. 선배처럼 선배 좋을 때는 일하고 선배에게 나쁠 때는 일 안할 후배는 하나도 없어요. …"[57]

교회에서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지섭을 향한 영희의 공격은, 앞서 산업

시 이외에 다른 노조의 소식이 첨부되어 있다. 한편, 영희가 「우리들 소식」 회보를 받아보는 장면은 『시간여행』에 수록된 첫 단편인 「모독」에도 등장한다. 이 글에서는 영수의 죽음 이후 사라진 어머니와 영희를, 은강방직 노조지부장이었던 '일꾼 영이'가 찾아내어 그들의 근황을 「우리들 소식」에 싣는 것으로 나온다. (「모독」, 『시간여행』, 앞의 책, 14면.) 「천사의 달」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작은 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회장 언니'가 찾아냈다는 내용으로 서술된다(「천사의 달」(70),1981.9.25.)

57) 「천사의 달」, (77), 1981.10.3.

선교회가 현장근로자의 대량 해직으로 인한 내부 갈등과 정치적 탄압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노동운동을 떠나야 했던 정황을 담고 있다. 「클라인씨의 병」에서 보았듯, 지섭은 대학생 신분을 버리고 오랜 기간의 위장취업을 통해 노동운동가로 성장했었다. 이 장면은 노동운동에 열정을 지닌 학생운동가들이 기독교 노동운동 조직과 연계하여 개인적으로 현장에 뛰어들던 1970년대와는 달리, '학출' 집단에 의해 본격적으로 '노학연대'가 조성되어 가던 1980년대의 분위기를 반영한다.[58]

이처럼 「천사의 달」은 노동운동 참여 세력의 계급적 구분을 없애거나, 1980년대를 맞아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운동계의 동향 등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정작 영희가 은강방직에 위장취업을 하겠다고 밝힌 다음부터 서사의 혼란을 겪기 시작한다. 영희는 모친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자 그 뜻을 어기지 않을 테니 자신을 구속해달라 부탁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영희네 아파트 바로 맞은 편에 있는 더 큰 평수의 아파트 열쇠를 영희에게 건넨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속물이며 '마귀의 혼'을 지녔음을 인정하고야 마는 것이다. 당초 연재를 시작하며 '신중산층의 자녀'와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그들 나름의 많은 문제와 부딪치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리겠다고 했던[59] 작가의 포부를 감안한다면, 부르주아와 재벌 모두가 계급적 한계를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는 서사의

58) 한국의 노동운동사를 다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1970년대를 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청년회 등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노동투쟁이 이루어진 시기로, 1980년대는 집단적으로 현장에 투신한 학생 출신 노동자의 주도하에 노학연대 투쟁이 이루어진 시기로 본다. 유경순에 따르면, 1970년대 노동현장에 투신한 소수의 학생운동가들이 현장의 기술 습득에 너무 오랜 시간을 들이느라 정작 유신정권 하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거나, 크리스천 아카데미 등 기독교 노동운동 단체의 교육활동을 매개로 노조운동에 개입했다. 이를 감안하면 1980년대의 학생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의 정치계급화'를 보다 의식적으로 추구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채구묵, 「1980년대 민주노동운동에서 학생 출신 지식인의 역할」, 『역사비평』78, 2007 봄호, 385-415면. ; 유경순, 「학생운동가들의 노동운동 참여 양상과 영향」, 『기억과 전망』 29, 2013.11, 52-96면.)

59) 조세희, 「새연재소설 「천사의 달」을 말한다」, 『조선일보』, 1981.7.5.

흐름이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비관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는 지점에서 내내 삼인칭으로 이야기를 집필하던 작가는 직접 서사 내에 모습을 드러낸다. 영희는 작가를 직접 소환하여 비난한다.

> "비겁자!" 영희가 소리쳤다.
> 그 소리를 나는 들었다.
> (영희가 경우가 들고 있는 봉투에서 저금통장을 꺼내 던지며 사방치기를 한다)
> "겁을 먹고 우리를 잡아 놓았어."
> 발등 위에 저금통장을 올려놓은 다음 발을 들었다.
> "죄의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너를 작가가 무서워하고 있어. 나의 독립을 방해한 사람도 작가야. 그가 병들었으니까 나도 숨죽여야지. (…후략)" 60)

따옴표로 묶인 대화의 바깥에 존재하는 지문의 '나'는 작가 자신을 가리킨다. 즉, 영희가 '비겁자'라 말했을 때 '그 소리를 나는 들었다'고 서술하고 있는 '나'는 작가 자신인 것이다. 영희는 경우의 죄의식을 무서워하여 머뭇거리는 이도, 노동 현장으로 가겠다는 자신을 방해한 이도 작가라며 비난한다. 경우는 영희의 이러한 태도가 "은강으로 자신을 보내주지 못하는 작가를 증오"하는61) 심정에서 나온 것이라 말한다. 물론 이 삽화 이후로 연재는 20회 정도 계속되지만, 이후의 내용은 가족과 불화하는 경우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으로 앞서 절정에 이른 두 인물과 작가 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 소설은 어수선하게 끝나 버린다.

「천사의 달」은 전망이 없는 세계에서 미래의 희망을 말해야 할 때 서

60) 「천사의 달」(89), 1981.10.17.
61) 「천사의 달」(90), 1981.10.18.

사의 진행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놓아 버리곤 했던 조세희 특유의 증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난쏘공』의 후속작으로서, 재벌과 부르주아가 만나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모습을 그리겠다는 서사를 저지하고 나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작가 자신이다. 앞서 '작은 섬'을 낙원을 만들겠다는 경우의 계획을 두고 '해괴한 도덕주의의 냄새'가 난다며 반대했던 지섭의 목소리는, 비단 지섭의 것만이 아니라 작가의 것이기도 했던 셈이다.

5. 70년대가 보내는 청구서

이 글에서는 조세희의 『난쏘공』과 「천사의 달」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작중의 노동 관련 서사가 1970년대 기독교 노동운동, 특히 산업선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양상을 살폈다. 이러한 접근은 난장이 가족의 행복동 에피소드에 비할 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은강 에피소드, 그리고 그간 조세희 소설에서 거의 분석되지 못한 신문연재 소설 「천사의 달」을 당대 노동운동사 속에서 읽어본다는 뜻도 된다. 본론에서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다루고자 하였다. 우선 은강으로 이주한 난장이의 자녀들은 어떻게 노동운동 현장에 합류하게 되었는가. 다음으로는 노동운동에 열정적이던 영수는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마지막으로는 『난쏘공』 이후 남겨진 과제들은 어떤 소설로 나타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관통하는 전제는 조세희가 집필에 몰두한 1970년대가 관념과 물질, 즉 종교와 노동이라는 두 극단이 하나로 합쳐졌던 시기라는 점이다. 기독교와 가톨릭의 많은 단체와 조직들이 직접 열악한 노동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일에 뛰어들었다.

이로 인해 종교와 구원이라는 관점은, 적어도 조세희에게 있어서는 종교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를 보는 시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난쏘공』은 이러한 맥락에서 태어났다. 이 맥락은 중요한데, 작가 조

세희가 말하는 사랑, 희망과 같은 용어들이 결코 관념의 소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사랑, 희망, 죄악은 삶의 영역에서 행정과 법으로 구현되어야 하고 또는 처벌받아야 하는 실재들이다. 타인의 육체적 훼손(약해짐)을 담보로 '나'의 일상이 보장된다는 것, 조세희는 그것을 '죄'라 보았고 1970년대의 절망을 보았다. 그가 은강으로 달려간 것은 이러한 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죄를 대속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작가는 「천사의 달」에 이르면 이러한 죄의식이 작중의 인물을 극단으로 몰아갈 때 스스로 나서 중지시키고야 만다. 현실에 대한 종교적 개입이 실패로 끝난 이후, 그 이후의 노동운동에 대해 새로운 상상을 해내야만 했던 시점이었다. 종교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 즉 도덕주의를 내세워 서사를 몰아가던 일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죄인들의 세상에서 작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천사의 달」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연재를 끝내면서, 작가는 "10년 한 주기가 끝나가고 있었다. 경우는 기다렸다. 경우가 받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큰 청구서를 70년대가 보내고 있었다."라고[62] 적었다. 누군가의 고통과 훼손을 담보로 누리는 안락함이란 커다란 빚을 지고 산다는 의미도 된다. 그리고 그 고통과 훼손을 외면할수록 빚의 양은 점점 늘어난다. 작가는 이처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거대한 청구서'를 들고 안타까워했다. 오늘날 이 청구서는 어디까지 정산이 되었을까. 조세희 문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말은 슬프게도 이 빚더미 청구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도 될 것이다.

62) 「천사의 달」(112), 1981.11.13.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1997(4판).

조세희, 「천사의 달」, 『조선일보』, 1981.7.7.~11.13.

조세희, 『시간여행』, 문학과지성사, 1983.

조세희, 『침묵의 뿌리』, 열화당, 1985.

조세희 · 이경호, 「작가 인터뷰-2.5세계의 불안한 나날」, 『작가세계』14, 2002년 가을호.

『문학과지성』, 『조선일보』

2. 단행본

김병익, 「대립적 세계관과 미학」,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997, 문학과지성사, 1997.

김우창, 「역사와 인간 이성-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4반세기」, 『작가세계』14, 2002 가을호.

서덕석, 『조지송 평전』, 서해문집, 2022.

우찬제, 「대립의 초극미, 그 카오스모스의 시학」,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1997.

윤지관, 「뫼비우스의 심층 환상과 리얼리즘」, 『창작과비평』32(1), 2004.3.

이부영, 「좌담회_내가 생각하는 민족문학」, 『창작과비평』13, 1978.

장숙경, 『산업선교, 그리고 1970년대 노동운동』, 선인, 2013.

3. 논문

김예림, 「빈민의 생계윤리 혹은 탁월성에 관하여」, 『한국학연구』36, 2015.2, 52-76면.

류경동,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구-개작과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14(2), 2013, 99-103면.

배하은, 「흔들리는 종교적 · 문학적 유토피아-1970~8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살펴본 노동자 장편수기 연구」, 『상허학보』(56), 2019.6, 401-443면.

유경순, 「학생운동가들의 노동운동 참여 양상과 영향」, 『기억과 전망』 29, 2013.11, 52-96면.

이영진, 「'범죄'의 재구성: 1977년 무등산 철거반원 살해 사건을 둘러싼 물음들」, 『비

교문화연구』20(1), 2014.1, 6-36면.
채구묵, 「1980년대 민주노동운동에서 학생 출신 지식인의 역할」, 『역사비평』78, 2007 봄호, 385-415면.
최인애, 「조세희 소설에 나타난 희망의 정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4. 기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 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
서울연구원 (https://data.si.re.kr/data/)

<Abstract>

Cho Sehee's 'Eungang' Series and Industrial Mission in South Korea in the 1970s
−Focused on *The Dwarf* and *Angel's Moon*

Joung, Ju A

This paper analyzes works of Cho Sehee, famous for his novel *The Dwarf*, under the influence of industrial missionary in South Korea in the 1970s. In the 1970s, Korea was experienced rapid industrialization led by the government, and as a result, many young people(especially women) were in very poor working conditions. Cho criticized the fact that the public could live a comfortable daily life based on the physical pain of these workers as a "sin." His *The Dwarf* dealt with a process in which dwarf's children moved to a large industrial complex called "Eungang" and then participated in the labor movement. Eungang, a fictional industrial complex in this novel, was modeled on Incheon, a representative industrial complex in South Korea. At that time, Incheon was crowded with textile factories operated by a lot of manpower, so the ministry activities of the industrial missionary were active. Cho Sehee created a space called Eungang because this is not only the place where Korea's labor problem is most serious, but also the place where efforts to solve this labor problem have been made most urgently.

Key words: Cho Sehee, *The Dwarf*, *Angel's Moon*, Eungang, Industrial Mission, Workers' Church, Incheon Christian Urban Industrial Mission, Dongil Textile Company

투 고 일 : 2023년 11월 20일 심 사 일 : 2023년 12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3년 12월 22일